

계시철학

(H. Bavinck 저 / 위거찬 역 / 성광문화사 : 서울, 1984)

한수환

I.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바빙크는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칠줄 모르고 노력하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광범위하고 유창한 웅변술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면모가 선명하게 나타난 저서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이 「계시철학」일 것이다. 그의 이 책은 강연한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으로, 그의 핵심적인 사상이 특수한 주제 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무시하고 있는 개혁주의의 세계뿐 아니라 기독교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도 보기 드문 명저 가운데 한 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책을 평가 한다는 자체가 자격지심에 빠져들게 하지만 기독교 학문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서, 이 책에 나타나는 그의 사상과 이론을 보다 쉽게 요약함

과 아울러 그의 공적을 높이면서, 조그마한 성찰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II.

인간이 눈부시게 이루어 놓은 학문도 따지고 보면 그 학문을 하고자 하는 개별자의 인간관과 그 인간관에서 나오는 접근(approach)이라는 하나의 시야를 가지고 학문의 전포괄성을 취급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철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이다. 학문은 그 학문을 하는 특정 인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접근도 엄밀하게 보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출발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Theonomy적인 학문관으로, 그 출발점이 신의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는 Autonomy적인 학문관으로 그 출발점은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본성이다. 전자의 학문관은 주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에 의한 접근이며,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세속 학문과 세속종교 철학에서 가지는 이론의 태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접근은 출발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해서 접촉점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기에서 접촉점을 찾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초월주의로 굴러가 버리고 Autonomy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특정 이론가들이 제시한 모범적 이론(typical theory)으로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들의 영혼을 위해 학문과 실천을 통하여 저들이 말하는 이론에서 접촉점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다. 바빙크의 「계시철학」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내지 학문관은 성경에 기초를 둔 개혁주의적인 사상과 그 사상을 체계화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철저한 Theonomy의 생각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면서 Autonomy의 이론을 분석, 비판할 때는 자신의 Theonomy적인 내용을 일방적이고 접촉점 없는 선협적인 접촉으로 단순히 그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방법과 함께 병행하면서 그들의 맹점을 발견하여 기독교적

인 메세지를 가하는 것이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이 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Idee는 한 마디로, 인간과 관계하는 모든 영역(철학, 역사, 자연, 종교, 문화, 미래 등등)에는 이미 선형적으로 인간성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이다. 그 계시는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반드시 특별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 계시의 특성은 그 계시의 원리들을 기초로 제공하는 반면 이 원리들을 적용하고 그 기초들 위에 어떤 그 무엇을 쌓는 것은 인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즉 계시의 기초로는 창조, 타락, 그리스도의 구속, 재림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메세지가 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인간 세계에 계시라는 Theonomy가 선형적으로 주어졌는데 그 원리를 인간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시 말해 자기의 욕구와 자연성 대로 펼쳐기 시작하는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바빙크는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나열하여 풀어 나가는데, 철학, 자연, 역사, 종교, 기독교, 체험문제, 문화, 미래 등으로 계시의 신적 선형성 내지 신적 기원의 흔적을 밝히는 것이다. 세계 역사의 흐름은 곧, 이론의 부정, 대립의 역사인데 한 이론이 영구히 정초된 적이 없고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이론에 의해 거부되면서, 소위 “발전”이라는 형태를 인류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함이 참으로 인류에게 만족을 주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류 역사의 기반이 되는 신적 지혜를 인간의 독단과 무지로 인정치 아니하면서 비뚤어진 인간 정신이 스스로 선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류 역사의 방향이 스스로 만족하든지 혹은 불만족하면서도 이런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바빙크는 기독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학문(주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외에도 인간존재의 모든 영역에 신적인 기원으로서 존재하는 계시를 찾고 그 계시를 다른 제반 학문에서 찾은 업적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시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III.

먼저 철학과 관계하여 논해 보면, Autonomy의 인간관에는 두 가지 뚜렷한 사

상의 줄기가 방법을 달리 한 채 병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과학이다. 전자를 좀 좁혀 본다면 인간 정신의 독단성과 합리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믿고 있는 과학(이원론, 관념주의, 합리주의적인 성향)이며 후자는 경험과 자료, 검증, 증명을 토대로 엄격한 귀납법적 사고가 기준이 되는 실증과학(일원론, 경험주의, 자연주의적인 성향)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향을 달리해도 자율성의 원리를 통해서 사상의 무정부주의에로 이끄는 것과 의지의 자력구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신과학의 독단성과 관념성은 더 이상 현대의 지배적 성향은 아니더라도 인류 정신사를 한동안 지배해 왔다는 점에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며 실증과학은 현대를 강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한계를 자신들이 드러내 놓았다. 이상주의를 신봉하는 관념은 실증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실증은 정신을 빈곤케 한다 하여 자아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론을 제기 할 때 확신에 의해 주장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론에 거부되는 것은 인간 본성이 본연의 신적 기원인 계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인간 본성에는 신적인 창조적 지혜가 주어져 있지만 철학은 단순히 그것을 부분적으로 발견하면서도 발견된 그것을 절대화 한다는데서 진리와 멀어지는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도 바빙크는 Theonomy의 신적계시를 Autonomy를 분석함으로써 꼬집어 내는데, 세계 자체는 신에게 근거하고 있고 그 법칙과 질서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과학은 진화론적인 자연관에 입각해서 이 계시를 보기 싫어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기인된 일원론적 자연관은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적 장치로 만들어서 실제의 인간에게 존재의 기반과 영혼의 안식을 빼앗아 갔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 보면 이러한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법칙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 즉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발견된 법칙들일 뿐이지 자연과학이 창안한 법칙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자연과학의 기반도 곧 창조의 지혜라고 증언한다.

계시의 필연성과 그 의미는 자연보다 훨씬 높고 풍부하게 역사 가운데서도 나

타는데, 바빙크는 이 테마에서 현대의 역사관 가운데 지배적인 성향인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분석, 비판하는데 실증주의적 역사관은 소위 일원론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투시하고자 하는 진화개념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이러한 역사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스스로 편견없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생물학적이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꼬집어 내어서 원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전 역사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관은 자주 스스로의 어려움에 봉착하곤 한다. 즉 어떤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인과율을 증명함으로 가능한데, 그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귀납법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하는데 이 인과율의 법칙을 아직도 경험적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그것을 형이상학 속에 내맡긴 채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실증주의 역사관에 해당되는 제반과학이 형이상학(정신)을 부정하고 있다하나 그 “법칙됨의 법칙” 혹은 “원리됨의 원리”라는 궁극적 시원은 형이상학 내지 계시에서 빌려 올 수 밖에 없다고 바빙크는 논증한다. 그러면서 이 형이상학은 곧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역사도 필연적으로 신적 계시의 지배에 의존한다고 본다.

자연 뿐만 아니고 역사가 계시에 뿌리를 막고 있으며, 그것들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견지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자연과 역사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종교는 말할 나위 없이 계시에 절대 의존해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 진다. 소위 종교에 대해서도 세속인들이 일원론적인 실증주의적 시야를 가지고 종교를 투시할 때 인류의 발전이 혈통이론에 의한 진화론적인 가설에 의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대체로 비종교적인 요인들로부터 종교를 꼬집어 내어야 하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 인류가 하등동물에서 진화하여 발달했다는 진화론적 과학사관에 따르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대두한다. 인간의 상태가 하등동물일 때라는 고대 원시인들의 생활에도 고고학적으로 종교의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종교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그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가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선적인 정신과학이나 진화론적인 자연과학 모두가 종교에 대해

는했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뿌리가 없이 물신숭배, 정령주의, 조상숭배나 미신, 마술들과 같이 유사종교적 형태로 종교를 설명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바빙크는 보고 있다. 그는 이 자체도 종교가 철저히 계시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증거이며 참다운 특별계시를 통해 고유한 참 종교를 보게 된다고 하였다. 즉 계시 없는 종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생겨난 종교가 결국은 유해한 미신적 형태로 물고 간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바빙크는 참 종교가 기독교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또한 문화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포괄적인 지식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한데, 한 마디로 모든 문화가 기독교에서 근원적으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주로 권위있는 문화사가의 이론을 많이 인용하면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원뿌리도 유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서아시아의 고대문명에서 왔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 근원지인 기독교 문화와 바벨론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 가면서, 바벨론 문화의 배후에도 역시 계시가 존재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도 바빙크의 주된 사상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인류 문화의 모든 생성과 조화, 관계들이 모두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벨론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미신과 더불어 미술의 형태로써 신화로 흘러간 것에 반해, 기독교 문화는 신화적 감정을 배제한 채 역사의 형태로 정초되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창세기의 원복음에서 만물의 완성까지 이르는 하나의 실이 역사를 꿰뚫고 가는 신의 의지가 반영된 종교라는 것이다. 과거문화도 그렇거니와 현대문화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근원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현대문화는 특히 다양한 세계관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두드러진 성향은 인간의 자율성 위에 선 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배금주의와 유희론적 사관이 기계론과 병합하여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몰아 부친다든지, 기독교가 현대사회에 부적합한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에 바빙크가 취한 태도는 기독교가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율성의 터 위에 선 현대문화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과 삶의 자유를 주었는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현대에 나타난 각종

문화적 병폐와 본래의 의미를 잃어 버리고 방황하는 현 문화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한쪽은 배금주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무정부주의로, 또 다른 쪽은 자충족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윤리적 상황문화로 나간다)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태도들은 기독교와 현대문화를 첨예하게 대립시키는데서 나온 결과인데,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어떤 원리를 인간 존재의 기초로 세워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떤 무엇을 쌓는 것은 인간들의 책임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대문화의 자율성 자체도 기독교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며 이것을 왜곡시킨 것은 타락한 인간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논박하고 있다.

바빙크는 이러한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류역사가 세속적인 인간 자충족성과 진화론적인 세계관 내지 자연과학적인 실증주의를 우선시 하면서 나아감에 따라 인류는 현재에 불만족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늘 새로운 염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다가오는 미래는 내용 없는 이상적 왕국임을 의미할 뿐인데 이것은 과거의 역사가 보여 준다. 즉 개신교가 자유주의에 이르는 길을 예비했고 그 자유주의는 민주정치를 위한 길을 예비했듯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로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다. 부단히 완성되지 않는 희망을 가진 채 또 다른 이상주의를 향해 인류는 나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관도 사실은 그 내면속에 신속한 재림이라는 신앙적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바빙크는 생각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세속인들은 말하길 현재는 불만족스럽지만 미래는 언제나 희망적이며 낙관할만 하다는 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 자율성과 진화론적 사관에 의한 과학적 자만으로 이러한 역사관에서 완성될 미래는 결국 인간의 신격화를 향해서 달음박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는 과거에서 보듯 “목표없는 과정”이며 이렇게 세워진 낙관은 바꾸어 말해 비관적 미래를 감추려는 일종의 오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과학과 현대문화가 실상은 우리 인간에게 확실한 낙관을 보증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종교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기독교 밖에 없음을 논증한다. 결국

인간문화의 시원 속에 신이 계시하셨다면 그것을 성취하실 분도 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가 자명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빙크는 특별계시가 온 인류의 미래를 밝혀 주며, 주님의 재림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역사에게 의와 심판의 계시가 현재의 구름과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IV.

참으로 바빙크는 이 책에서 그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여러 분야에 정통해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다. 특히 자연과학에 대한 그의 지식은 마치 그가 자연과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무엇보다 “계시”라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정신과학의 독단성과 경험과학의 회의주의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선명하고 다양한 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나타내어 준 그의 업적과 사상에 존경의 염을 보내고 싶다. 더욱 의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그의 학문의 접근방식인데 사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Theonomy와 Autonomy 사이에는 엄밀하게 접촉점이 없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철학자들은 접촉점을 찾기에 노력하는데 설령 찾았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세속학문에 대해 소위 선협적 비판이라는 미명 아래 출발하다가 나중에는 독단적인 비판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빙크의 접근방식은 기독교의 독특성 내지 우월성을 세속학문과 대치시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학문의 특정이론을 분석하면서 그 이론이 또 다른 이론에 의해 비판받는 내용의 한계를 밝히면서 그 한계를 기독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마치 예를 든다면, 세속학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처가 나면 병원에 오는데 기독교 학문은 서로 싸우다가 상처난 자들이 찾아오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가 적절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학문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우수성인데, 기독교와 세속학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속학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싸우다가 생긴 저들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치료해 주도록 하는 태도를 그가 시종일관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를 편협한 독단주의나 초월주의로 만들지 아니하면서, 궁극적인 해결점을 저들에게 제공해 주는 참다운 선형적 비판주의를 그에게서 발견해 보곤한다. 이러한 시도가 세련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진리로 섬기는 현대인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위해서는 세속인들 보다 훨씬 힘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진다. 즉 자연과학자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의 전문적 지식도 갖추어야 하며 인문과학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위해 그들이 가지는 전문지식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인의 학문관은 전포괄적이어야 하는데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너무 벅찬 일이 아닐까 하는 전율도 느껴 본다. 그러나 조잡하고 편협한 지식으로 저들에게 힘없는 주먹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요원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서평에서 알팍한 지식으로 수십년간을 고민하여 쌓아온 한 기독교 철학자의 업적을 바닷길 보다는 이 분이 마련해 준 기독교 학문의 징검다리를 즐겁게 사용하면서, 그분이 못다 이룬 관심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